

“4·3특별법 2월 임시국회서 통과 노력”

원희룡 지사-오영훈 의원 11일 초당적 협력 약속 배·보상 관련 ‘위자료’ 용어는 부대의견으로 첨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국회의원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다만 4·3특별법 개정 속 배·보상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위자료’ 용어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법률적으로 ‘배·보상’의 의미가 내포돼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첨부하기로 했다.

오영훈 의원은 11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위자료에 대한 용어문제와 추가진상조사 등에

대한 야당과의 이견을 잘 조율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보상방안 마련과 관련해 “고위급 당·정·경 협의에서 합의된 원칙은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6개월간의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며 “응역후 2022년 예산안에 보상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정부당국에서는 연구용역이 끝난 후에 법률 개정작업을 하는 것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안에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에 대해 오 의원은 “위자료는 법률적으

로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 등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배상’을 의미한다”며 “배상의 용어를 정부당국이 수용했다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앞서 오영훈 의원은 도청 도시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만나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와 오 의원은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 4·3의 정신에 입각해 내달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72년 한을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모았다.

원 지사는 배·보상과 관련해 “국가 책임이 흐려져서는 안된다. 배·보상의 원칙적 입장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정 어려움 등의 이유로 4·3희생자들에게 실질적

인 보상 액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가장 유리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대의견 반영 등을 포함하고 국회에 재차 전달해 국민 사회의 의견이 법안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영훈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당은 “오 의원이 원 지사를 만나 사실상 위자료 용어 문제에 변경 가능성을 열어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원칙있는 특별법 개정 국회를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사후 대처보단 선제적 치안활동 주력”

강황수 신임 제주경찰청장 “자치경찰과 인력 조정 ‘도민안전’ 최우선 둘것”



신임 강황수(58·치안감)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은 경찰법 개정으로 전국 유일의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이 적용된 데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후 대처가 아닌 선제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11일 제주경찰청 기자회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주지역 치안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 청장은 자치경찰과의 인력 이관 및 업무 조정 등에 대해 “치안은 국가경찰과 지역 공동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자치경찰위가 구성되면 자치경찰과 협력해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도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청장은 제주지역 치안에 관해 사후 대처보다 예방 중심의 선제적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을 쏟겠다

는 의지도 드러냈다.

강 청장은 “범죄가 발생한 후 검거에 주력하는 것이 아닌 범죄 발생 이전 선제적·적극적 경찰활동에 경찰 업무의 중심을 두겠다”며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범죄에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더욱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램프그룹의 거액 횡령 사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강 청장은 “해당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부분은 말하기가 어렵다. 각종 외국인 범죄와 관련해 여러 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해기자

32명민호 실종 한국인 선원 시신 추가 발견

속보-제주 해상에서 전복된 뒤 침몰한 한림 선적 32명민호 실종 선원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1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15분쯤 제주항 동방파제 등대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던 시신을 수색 중이던 해경이 발견했다.

신원 확인 결과 32명민호 기관장

A씨로 확인됐다고 해경은 밝혔다.

실종 선원의 시신 1구가 추가 발견되면서 32명민호의 남은 실종 선원은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이다.

32명민호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7시44분쯤 제주항 북서쪽 2.6km 해상에서 전복돼 표류하다가 30일 오전 3시47분쯤 제주항 서방파제와 부딪힌 뒤 침몰했다.

강대해기자



“바다로 나갈 준비해야지...” 11일 제주항 어선부두에서 어민들이 그물을 정비하는 등 출어 준비를 하고 있다. 강대해기자

“제주4·3특별법 개정 무산 정부와 정치권은 사죄하라”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11일 논평을 내고 “또다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무산시킨 정부와 정치권은 유족과 제주도민 앞에 사죄하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4·3 특별법 개정을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배·보상은 정부 스스로 인정한 국가폭력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회복·명예 회복 조치”라며 “정부와 여당은 과거사 청산의 원칙을 저버리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대해기자

제주 코로나19 신규확진자 34일 만에 최저

10일 하루 동안 2명 발생... 최근 한자릿수로 줄며 감소세 확인

제주지역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 6일 이후 전일대비 계속 줄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들어 가장 낮은 발생 수치를 기록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루 동안 도내에서는 총 396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뤄졌으며, 이중 2명(제주 486-487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방역

당국은 486번 확진자에 대한 감염경로를 확인 중이다. 487번 확진자는 지난 9일 확진판정을 받은 제주 485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제주에서 하루 동안 2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 8일 이후 34일만이다.

더불어 11일 0시부터 5시 기준 1명(488번)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488번 확진자는 471번 확진자와 동선 일부가 겹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도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보다는 주춤세를 보이고 있지만, 폭설에 이은 한파로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것이 신규 확진자 수 감소에 일

부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달들어 제주 확진자 수는 ▷1일 13명 ▷2일 4명 ▷3일 10명 ▷4일 8명 ▷5일 5명 ▷6일 9명 ▷7일 6명 ▷8일 5명 ▷9일 4명 ▷10일 2명 ▷11일 오후 5시 기준 1명 등 총 6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제주지역에서는 1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퇴원해 11일 오후 5시 기준 격리 중 도내 확진자는 총 75명, 격리해제자는 413명(이관 1명 포함)이 됐다.

이태윤기자

추위속 화재 잇따라 발생

북극발 한파가 몰아친 제주에서 화목난로 부주의,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11일 제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3분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목화농장 내 목재 간이 창고에서 불이 나 약 2시간30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내부 일부가 소실되면서 소방당국 추산 약 99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목난로 취급 부주의로 인한 불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제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7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키위 목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약 20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열풍기 등이 불에 타 소방당국 추산 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대해기자 dhkang@ihalla.com

SM그룹 에스엠신용정보

생각만해도 머리 아픈 돈, 돈! 최선으로 받아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에스엠신용정보**를 선택하십시오!
만족으로 보답해 드립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부동산대금, 투자금, 빌려준돈(판결문, 공증), 약정금, 구상금, 계돈

고객님 언제든지 전화,방문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며 착수금(선불경비)일체 받지 않습니다

에스엠신용정보 제주지사 ☎ **064)756-9041**

직원모집 추심관리사, 영업전문직을 모집합니다 064)725-9001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맛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방지 가시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복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락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